



01. 주제 선정 이유

## 한국경제

"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"...편의점 알바생 눈물

사회>사회일반 2022-07-13 김현덕

## 🕌 헤럴드경제

"속은것도 억울한데"...미성년자에게 담배 판 알바생 벌금 '날벼락'

사회>사회일반

## 서울경제

"미성년인 줄 모르고 담배 팔았다 벌금이..." 알바생 '날벼락'

사회>사회일반 2022-07-14 조교환기자

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
"벌금 100만원 물었다.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가 상권이라
그나마 벌금이 적게 나왔다"며 "다행히 가게 영업정지 조치는 안 됐다"고 운을 뗐다.

- 서울경제, 2022.07.13 뉴스 발췌 -

## 청소년에게 "유해 물품" 판매 시



적발 시 마다, 점주와 알바생들의 힘들어짐은 늘어만 간다 그렇다면, 신분증을 제시하기 전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걸까? 유해물품을 구매하게 되면, 얼굴을 인식하여 신분증 검사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는

"성인과 미성년자 판별 서비스"